

# 韓國窯業의 흐름

林 應 極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 1. 緒 論

우리 나라는 5千餘年の悠久한 역사와 찬란한 文化를 이룩하였다. 그중에서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리나라 固有의 象嵌靑磁와 粉靑沙器를 만들어냈다. 이 靑磁는 中國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른 시기에 만들었던 것이다.

中國에서는 六朝時代의 北齊의 武平年間 즉 A.D. 570~575 年에 靑磁와 白磁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한국은 高麗 成宗 12年 淳化三年 (993年) 銘壺의 素文靑磁가 發見되었고, 日本에서는 1616 年에 韓國人 李參平이 有田에서 처음으로 白磁를 구어내고, 獨逸에서는 1710 年에 Meissen에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磁器를 제조하였고, 英國에서는 Josia Spode가 처음으로 bone china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오랜 도자기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현재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만한 근덕지가 現代化 技術에 늘려 찾아 볼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도자기 공업은 後進性을免치 못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과거의 발자취를 찾아 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 2. 各 論

### 1) 土 器

土器가 地球上에서 최초로 出現한 것은 이란·터어키와 같은 西南亞細亞地帶에서 대략 1萬年

前 新石器時代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산리(江原道 襄陽郡 巽陽面 鰲山里)유적에서 약 6000年~4500年 전쯤의 新石器時代에 만들어 사용한 빗살문토기(櫛文土器)라는 有文土器와 無文土器가 發見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新石器時代에는 빗살문토기가, 또 靑銅器時代에는 無文土器가 각각 특징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新石器時代를 즐문토기시대, 靑銅器時代를 無文土器時代라고 부르고 있다.

즐문토기 다음은 金海式土器로 불리어지는 原三國土器는 表面에 繩蓆文이나 格子文같은 印文이 있는 토기로서, 대체로 紀元前 1世紀 경부터 紀元後 300 年代에 이르는 3~4 百年後에 만들어졌다. 이때가 바로 三韓時代라고도 하여 新羅나 百濟가 완전히 王國을 이루지 못하고 小國이 각지에 산재해 있으면서 위 두 나라에 의하여 통일되고 있던 단계이다.

다음 三國時代에 이르러서 高句麗土器의 특징은 硬質보다도 軟質, 瓦質의 것이 많고 釉藥土器가 많이 제작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原三國時代의 傳統이 中國으로부터의 영향이 더해져서 나타난 결과이고 百濟土器는 漢城時代(371~475)에 灰色繩蓆文土器, 無文의 灰靑色硬質壺, 바닥이 평평한 外及口緣의 粗質酸化焰系 토기들이 보다 발전해서 만들어지고 瓦質系의 병 등이 高구려·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나 熊津時代(475~538)는 한성시대보다 제작수법이 보다 발전되어 灰靑色硬質 無紋土器의 제작이 늘어나는 한편 새로이 器台, 三足土器, 瓶, 骨壺 등 高구려와 신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백제토기들이 만들어졌으며 泗泚時代

(538~660)가 되면 鉛釉를 입힌 황갈색 기대가 출토됨은 더욱 다른 나라보다 특징있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新羅·伽倻土器는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고 登窯에서 還元焰으로 고온에서 구어지기 때문에 두드리면 쇠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灰青色硬質土器이다. 종래의 金海式 灰青色硬質土器가 둥근 밑과 몸체에 들어있는 打捺紋을 특징으로 하는 단순한 器形을 갖고 있는데 비해 이 시기에는 高杯, 그릇받침대, 異形土器, 잔, 土偶 등 여러 형태의 토기가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비교적 높은 굽이 달린 토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 토기들은 4세기 초에는 이미 독특한 모습을 띄우기 시작하여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는 신라·가야토기로 완전한 정립을 보이고 있다.

統一新羅時代土器(A.D. 668~935).

이 시기에는 三國時代의 土器에 많이 보이던 비실용적인 요소는 사라져 높은 굽은 사용하기 편하도록 낮게 만들어진다. 7세기가 되면 새로이 鉛釉土器가 등장하고 종래의 陰刻機佰紋 대신 印花紋土器를 만들어 쓰게 된다. 器形도 廣口瓶類, 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이 달려 있는 有蓋盒, 각종 형태의 骨壺가 많아지는 대신 신라·가야의 특징적인 토기인 土偶, 異型土器, 器台 등은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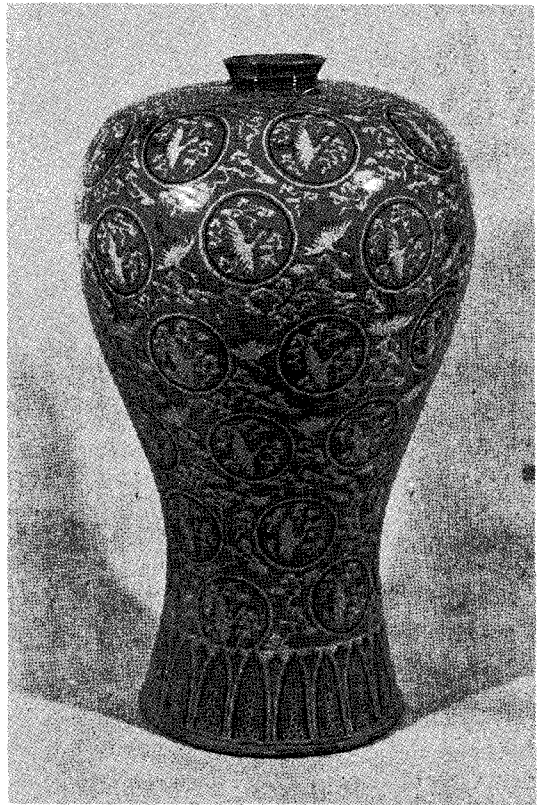
## 2) 高麗靑磁(918~1389)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宋窯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으나 그보다 우수하다. 太祖로부터 文宗(1082)때까지는 新羅文化 傳承時代로서 綠釉土器·瓦器가 주로 생산되었으나 그후에는 素朴한 제품을 만들고 차츰 기술이 발달되어 16대 睿宗(1105~1122)·17대 仁宗(1122~1146)때에는 소위 靑色靑磁時代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元軍이 侵入한 1231 이후부터 차츰 技法이 衰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象嵌靑磁가 발달한 시기는 睿宗·仁宗 때 崇高하고 靜寂하고 淸楚함을 특징으로 하는 靑色靑磁時代를 이룬 뒤를 이어 화려하고 복잡하고 動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尙尙靑磁時代를 나타낸 것으로 그 전성시대에는 仁宗·毅宗(1146~

1170) 때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의 도자기에는 靑磁·白磁·黑磁 등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이 청자로서 世界的으로 높이 評價받고 있는 絶品이다. 그리고 청자에는 황녹색이나 회녹색의 것도 소성분위기에 따라 있었으나 靑色의 것이 가장 아름답다. 象嵌法은 순전히 고려 특유의 技法으로 酸化鐵로서 2~3% 들어있는 素地에 무늬를 陰刻하고 그 부분을 白土나 赭土로 메꾸어 그 위에 역시 산화철 2~3% 들어 있는 유약을 두껍게 施釉하여 환원 소성하면 유약 중에는 굉장히 많은 기초가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유약 중에는 산화철이  $Fe^{++}-O-Fe^{++}$ 의 형태로 평형을 이루어 2價이온이 많으나 3價이온이 많으나에 따라 呈色이 달라지며 2價이온이 많은 편이 靑綠色 즉 靑色이 더욱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純靑磁는 식은테(水裂, crazing)가 없으나 尙尙靑磁는 식은테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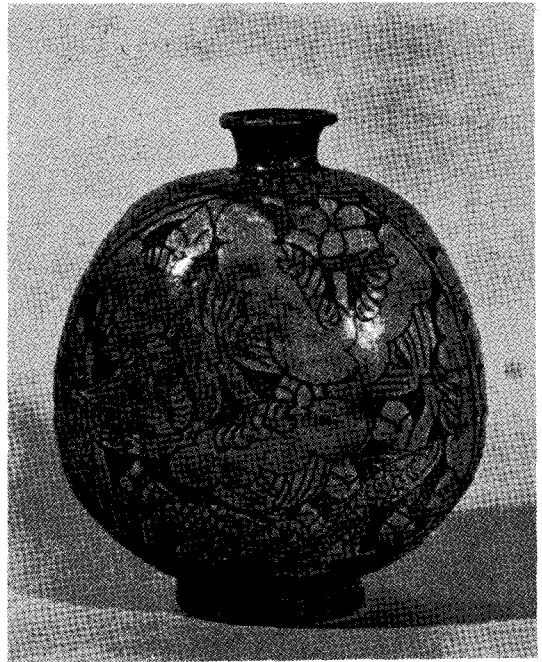


고려청자는 빛깔(色), 器形, 무늬(線)가 잘調和되어 세련된 美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實用品이라기보다는 貴族들의 사치품이었던 것으로 純靑磁와 象嵌靑磁로 二大別되며 기타 長砂·鐵繪·鐵粉·堆花·畫金 또는 金粉 및 練理文 靑磁들이 있다. 청자소지와 청자유약만 사용하고 粉料는 전연 사용하지 않은 것을 純靑磁라 한다. 이에 素文·陰刻·陽刻·透刻·象形靑磁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成宗 12年(993) 淳化三年 銘壺가 처음 確認되었으므로 이때가 磁器製造의 始初가 되는 것이다. 素文靑磁가 10세기에서 맨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純靑磁는 尙古靑磁가 전성시대를 이루기 前 즉 12세기 초까지 발달하였으며 辰砂를 쓰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초로 世界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였다. 기타의 靑磁도 모두 11~12세기 前半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다. 이중에서 象形靑磁는 動物·植物·古銅器의 형태를 본따서 만든 것으로 陽刻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靑磁全成時代는 窯址가 825個所나 발견되어 그 얼마나 많이 靑磁를 만들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 3) 李朝粉靑沙器 및 白磁

#### (1) 粉靑沙器

분청사기는 粉粧灰靑沙器의 준말로 靑磁와 같이 灰色 또는 灰黑色 素地 위에 白土로 表面을 粉粧하고 그 위에 회청색의 유약이 시유된 사기를 말하며 소지는 청자소지와 같으며 유약은 청자 및 백자유약과 같은 것이다. 이 분청사기는 初期에는 퇴락한 象嵌靑磁에서 시작하여 印花文과 象嵌文이 먼저 분청사기의 특성을 갖추며 발달하였다. 印花文은 주로 커다랗고 단순화하고 變形된 菊花瓣 등이 堆積된 施文되다가 시문이 늘어나고 개체의 문양이 점차 작아지고, 다시 이것이 점차 집단문양으로 器面 전체를 메꾸어 表面이 白土化粧으로 거의 빈틈없이 메꾸어졌을 때가 그 절정에 달한 시기이다. 소지는 점차 水飛하여 15세기 중엽에는 良質의 배토를 사용하고 器形은 고려말기의 둔탁하고 변화없는 형태와 線文에서 상패하며 또는 힘있는 曲線의 변화를 보게 된다. 대접·접시 등 입언저리의 外反과 梅瓶의 어깨에서 굽에 이르기까지의 굽이



치는 듯한 곡선에서 고려말 청자보다 현저하게 변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유약은 최초는 고려말의 청자유약과 같으나 점점 中性焰이나 還元焰으로 소성하게 되었고 유약의 철분 함유량이 청자보다는 미량으로 약간의 청색을 머금은 灰白色이거나 또는 약간의 黃褐色을 머금은 투명한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소지의 발색이 유약을 통하여 명확히 비쳐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表面색이 灰靑을 띄는 경우가 많다.

분청사기는 印花文·象嵌文이 먼저 발달하여 剝地文·彫花文·鐵畫文·귀얄문·粉粧文 등 白土粉粧의 변화로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분청사기는 15세기 초기에 器形과 문양·유약 등에서 이미 분청사기로서의 특징을 나타내어 印花文·象嵌文·剝地文·彫花文系는 世宗·世祖代까지 鐵畫文·귀얄문·粉粧文系는 成宗代까지는 거의 完成을 보았다.

粉靑沙器는 表面의 여러가지 粉粧法에서 오는 힘있고 新鮮하며 활달하고 자유분명한 粧飾意匠이 그 특징의 하나로서 世宗地理誌(145~155권)에는 전국에 磁器所 136個所와 陶器所 185個所가 기록되어 있는데 분청사기는 이 도기소

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靑磁窯址는 世宗 초년까지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알려지고 분청사기의 全盛時期는 3代 太宗(1400)에서 연산군(1506)까지이며 1592년에 일어난 壬辰倭亂으로 粉靑沙器는 그 자취를 잃게 되었다.

## (2) 白磁

백자는 임진왜란의 큰 타격을 받고도 계속 제조되어 李朝末까지 이조자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조선조의 도자사를 前期(太祖 1398~仁祖 初 1644)·中期(孝宗 元年 1650~英祖 27年 1751)·後期(英祖 1752~20세기 초)로 나누고 있다.

初期의 백자는 두 가지의 질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고려백자의 계열을 이은 것으로 기형은 부드러운 곡선이 主調가 되고 기면의 정리가 매끄러우며, 유약은 투명하고 일부 산화소성이 있는 것 같으며, 光澤이 있고 미세한 식은테가 있으며 대체로 소성시 소지와 밀착되지 아니하여 유약이 박리되는 현상이 많으며, 소지는 石膏白色으로 類質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元代로부터 일부 고려자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元의 도자기가 元末 明初에 이조자기에 큰 영향을 주어 새롭게 발달한 硬質의 백자이다. 이 백자는 유약이 대체로 얇게 시유되며 식은테가 없는 경우는 백색이고 미세한 식은테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나 약간의 청색을 띄우는 灰白色인 경우가 많다. 器形은 곡선 主調이나 풍만한 양감을 지니고,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 것이 있으나 유약은 광택이 은은하고 硬質로 堅微한 것이 특징이고 還元燒成으로 만들어져 있다. 고려계통을 이은 백자는 질적인 면에서는 고려백자와 거의 같으나 기형은 李朝의으로 변모한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조백자는 15세기 말경 元·明의 영향으로 새롭게 발달한 경질의 백자가 주류인데 壬辰倭亂까지 기형과 유약 등이 그대로 지속되며 죽절 굽이 점점 없어지고 모래받침 소성으로 일관된다. 임진왜란 후 기형은 거의 동일하나 모래받침이 가는 모래에서 굽은 모래로 변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17세기 초엽까지는 그대로 계속되

며, 丙子胡亂(1636) 이후 仁祖 말경에 가서야 기형·유약 등에 새로운 발전이 나올 수 있게 된다.

中期의 특색은 仁祖 이후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廣州의 中央官窯에서는 國風化된 靑華白磁를 만들어 蘭草를 필두로 하여 패랭이·국화 등이 간결 청초하게 主文樣으로 그려지고 이보다 늦게야 대나무·雲龍·細筆山水 등이 앞의 문양과 함께 등장한다. 前期 후반의 無實風이던 鐵畫文이 17세기에 이르러 半抽象化된 草花文과 雲龍文으로 변하여 간다.

後期는 廣州官窯가 金沙里에서 分院里로 옮긴 이후를 말하며 分院期라고도 한다. 이때는 淸朝의 康熙·乾熙 연간의 융성한 靑華白磁의 영향이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배토는 정선되고 기면은 전체를 매끈하게 정리되었으며 유약은 식은테가 없이 약간 푸른기를 머금으며 소지와 의 부침성이 좋다. 그리고 이 말기에는 모래받침이 耐火土받침으로 변한다.

백자에는 純白磁·靑華白磁(코발트青光로 그림을 그린 白磁)·白磁象嵌·白磁鐵畫文(石間朱文白磁)·白磁辰沙文 등이 있고 기타 黑釉(또는 天目釉)·鐵粉 또는 鐵砂釉 등이 있으나 純白磁와 靑華白磁가 主流를 이루고 17代 孝宗(1649~1659)에서 哲宗(1849~1863)까지 靑華白磁가 全盛期를 이루고 있다.

官窯였던 分院이 1883년에 日帝에 의하여 廢止됨으로써 李朝白磁는 終止符를 찍게 된다. 1917년에 日本硬質陶器社가 釜山硬質陶器를 建設함으로써 登窯에서 現代式인 單窯가 建設되어 1942年 杏南社, 1943年 中央陶器가 建設될 때까지 모든 陶磁器 技術者가 여기서 배출되어 금일의 한국 도자기공업 발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甕器工場과 傳統窯業工場은 水飛를 거쳐 발물레로 成形하는 工程을 옛 그대로 답습하여 登窯에서 만들고 있으나, 傳統窯業만은 現代式 기름 또는 가스가마로 소성하여 수율과 품질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웅기 공장은 구태연하다.